

투어 번호
LKFFH4TKM7

세렌디브 발견 (16일)

16일 · 15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16일 프라이빗 투어는 스리랑카의 방문객 회로 전역을 따라 운영됩니다: 서부 해안, 문화 삼각지, 캔디와 누와라엘리야 주변의 중앙 산악 지역, 하푸탈레와 엘라의 산악 지역 마을, 얄라와 우나와투나의 남부 야생동물 서식지 및 해안, 그리고 갈레와 콜롬보를 거쳐 최종 루프를 돌아 콜롬보로 돌아와 출발합니다. 경로는 해변에서 고대 도시로, 차 재배 지역으로 올라가고, 다시 야생동물 공원으로 내려와, 남부 해안에서 마치고 출발을 위해 콜롬보로 돌아갑니다.

길을 따라 시기리야 암석 요새를 오르고, 담불라의 동굴 사원을 탐험하고, 폴론나루와의 유적을 산책하고, 미네리야와 얄라 국립공원에서 사파리를 가고, 캔디에서 경치 좋은 산악 기차를 타고, 캔디와 누와라엘리야 주변의 차 공장과 사원을 방문하고, 엘라와 하푸탈레에서 등산하고, 우나와투나의 해변에서 며칠을 보내며 갈레 요새로 당일 여행을 갑니다. 투어는 마두 강가에서의 강 유람선 투어와 콜롬보의 관광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투어는 운전사 가이드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프라이빗으로 진행되며, 운전사 가이드가 이동과 물류를 담당하므로 각 정류소에서 자신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며 모든 연령의 여행자에게 적합합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네곰보

투어는 해변과 오랜 어업 전통으로 유명한 서부 해안 도시 네곰보에서 시작됩니다.



네곰보 비치

서부 해안의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변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다이빙 같은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어업 현장

해안을 따라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네곰보의 전통 어업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난파선 다이빙

해안에서 가까운 곳에 가라앉은 50년 된 난파선 주변을 다이빙하며, 지금은 다양한 어종의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Day 2 네곰보 → 담불라

내륙으로 이동하여 역사적인 석굴 사원 단지가 있는 담불라를 방문합니다.



담불라 황금 사원

기원전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석굴 사원으로, 부처의 생애를 그린 고대 벽화와 신성한 왕의 동굴, 대왕의 동굴, 새 대사원을 포함한 다섯 개의 주요 동굴에 수백 개의 불상과 신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Lankapic · CC BY 2.5

황금 불상

석굴 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거대한 황금 불상이 서 있습니다.

Day 3 시기리야 → 폴론나루와 → 민네리야 → 시기리야

폐허가 된 고대 도시 폴론나루와, 민네리야 국립공원 사파리, 피나왈라 코끼리 고아원 방문을 함께 즐기는 하루입니다.



폴론나루와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번성했던 스리랑카의 두 번째 고대 수도의 유적지를 둘러보며, 갈 비하라, 와타다게, 연꽃 목욕탕, 랑카틸라카 사원, 파라크라마바후 왕의 동상을 감상합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민네리야 국립공원 사파리

5월에서 10월 사이 건기에 150마리가 넘는 코끼리가 모이는 '그레이트 엘리펀트 개더링'으로 유명한 민네리야 국립공원을 사파리로 둘러보며, 그 밖의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도 만날 수 있습니다.

Stuart Pinkney · CC BY 2.0



피나왈라 코끼리 고아원

서식지를 잃거나 길을 잃은 약 70마리의 코끼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육 코끼리 무리를 보유한 곳입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4 시기리야 → 마탈레 → 캔디

시기리야 암벽 요새를 오른 후 마탈레의 향신료 마을을 지나 캔디로 이동하며, 저녁에는 전통 문화 공연을 관람합니다.



시기리야 암벽 요새

카샤파 왕이 건설한 5세기의 암벽 요새를 올라, 사자 발 모양의 입구를 지나 유명한 프레스코 벽화를 감상하고, 테라스식 정원과 저수조, 궁전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둘러봅니다.

Wrobell · CC BY-SA 3.0

유포리아 향신료·허브 정원

마탈레 인근에 위치한 향신료·허브 정원으로, 스리랑카의 향신료와 허브, 아유르베다에 대한 가이드 투어를 제공합니다.



캔디 문화 공연

불춤, 검무, 캔디안 댄서들이 북소리에 맞춰 공연하는 전통 스리랑카 무용을 약 한 시간 동안 감상합니다.

Arian Zwegers · CC BY 2.0

Day 5 캔디

캔디의 사원들과 왕립 식물원을 둘러보는 하루입니다.



엠벡케 사원

정교한 목조 조각으로 유명합니다.

Cherubino · CC BY-SA 3.0



가달라데니야 사원

주목할 만한 그림과 조각이 있는 역사적인 사원입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랑카틸라카 사원

당대를 앞선 건축 양식으로 유명한 사원입니다.

BluesyPete · CC BY-SA 3.0



데갈도루와 석굴 사원

벽면 전체를 덮고 있는 복원된 내부 벽화가 있는 석굴 사원입니다.

A.Savin · FAL



불치사(佛齒寺)

크림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내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원입니다.

A.Savin · FAL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

19세기 초에 조성된 정원으로, 난초와 향신료, 약용 식물을 포함해 4,000종이 넘는 식물이 있으며, 캐논볼 나무, 현수교, 생울타리 미로도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6 캔디 → 누와라엘리야

식민지 시대의 정취가 남아 있는 고산 도시 누와라엘리야로 이동하며, 차(茶) 공장 견학과 산악 지대를 지나는 기차 여행을 즐깁니다.



누와라엘리야 시내

영국 식민지 시대의 고산 휴양 도시로, 코티지와 빌라, 저택들이 들어서 있으며, 오래된 붉은 벽돌 우체국, 빅토리아 여왕 공원, 그레고리 호수가 있습니다.

Abdul malik77 · CC BY-SA 4.0

차(茶) 공장 견학

1852년 룰레콘데라 농원에서 상업적 차 재배를 시작한 제임스 테일러로부터 비롯된 전통에 따라 실론티가 생산되는 과정을 견학합니다.

산악 지대로의 경치 좋은 기차 여행

산악 지대를 지나는 기차 여행은 차 농장과 안개 낀 산골 마을, 숲, 폭포를 지나갑니다.

Day 7 누와라엘리야 → 호튼 플레인스 → 누와라엘리야

초원과 운무림, 전망대로 유명한 호튼 플레인스 국립공원으로 떠나는 당일 여행입니다.



호튼 플레인스 국립공원

오히야에 위치한 고산 초원과 운무림 지대로, 고유종 동물과 고고학적으로 흥미로운 유적지가 있습니다.

Faslan at en.wikipedia · CC BY-SA 3.0



월드 엔드

주변 지역을 넓게 조망할 수 있는 절벽 전망대입니다.

Faslan at en.wikipedia · CC BY-SA 3.0



베이커스 폭포

시원한 물보라로 유명한 공원 내 폭포입니다.

A.Savin · FAL

Day 8 누와라엘리야 → 하푸탈레 → 엘라

하푸탈레를 지나며 전망대와 식민지 시대 명소들을 둘러본 뒤 엘라로 이동합니다.



립톤스 시트

우와, 사바라가무와, 중부, 동부 지방을 조망할 수 있는 유명한 전망대입니다.

Kapidis (talk). The original uploader was Kapidis at English Wikipedia. · CC BY-SA 3.0

아디샴 방갈로

1900년대 초에 지어진 튜더 양식의 저택입니다.

세인트 앤드루스 교회

영국인 차 농장주들의 무덤이 있는 묘지를 갖춘 네오고딕 양식의 교회입니다.

Day 9 엘라 → 얄라

얄라로 향하는 길에 엘라의 명소들을 둘러봅니다.



리틀 아담스 피크

차밭과 바위 지대를 지나 리틀 아담스 피크에서 멋진 전망을 즐깁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나인 아치 브리지

건설 당시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지는 역사적인 철도 다리입니다.

Deitel55 · CC BY-SA 3.0



데모다라 기차역

독특한 루프형 철로 설계로 유명한 기차역입니다.

A.Savin · FAL

Day 10 얄라 → 우나와투나

남부 해안으로 향하는 길에 얄라 국립공원에서 사파리를 즐깁니다.



얄라 국립공원 사파리

스리랑카 표범, 야생 물소, 늘보곰, 코끼리를 비롯한 다양한 야생동물로 유명한,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입니다.

Ranmith Welikala · CC BY-SA 4.0

Day 11 우나와투나

고도(古都) 갈레로 떠나는 당일 여행입니다.



갈레 요새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통치 시기에 지어진 아시아 최고의 보존 상태를 자랑하는 요새 중 하나로, 네덜란드식 이름이 붙은 돌이 깔린 거리가 있습니다.

Rovin Shanila · CC BY-SA 4.0



해양 박물관

이 지역의 해양 역사를 다루는 박물관입니다.

Ji-Elle · CC BY-SA 3.0

갈레 국립 박물관

갈레의 역사를 다루는 박물관입니다.



갈레 등대

요새 구역 안에 있는 등대입니다.

A.Savin · FAL

Day 12 우나와투나 (12~14일차)

스리랑카 최고의 해변 중 하나로 꼽히는 우나와투나에서 사흘간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수상 스포츠와 거북이 관찰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나와투나 비치

고운 모래와 바닷바람으로 유명한 해변으로, 해안을 따라 멋진 일몰 전망과 고급 호텔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거북이 관찰

바다거북이 알을 낳기 위해 해변으로 찾아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수상 스포츠

해변에서 제트스키, 윈드서핑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15 갈레 → 발라피티야 → 콜롬보

콜롬보로 가는 길에 마두 강 보트 투어를 즐기고, 수도 콜롬보 관광과 스틸트 피셔맨(죽마 어부) 관람이 이어집니다.



마두 강 보트 투어

맹그로브 수로를 따라 보트를 타고 이동하며 일광욕하는 악어와 왕도마뱀을 지나, 계피 채취 섬에 들러 생선 마사지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SUPindia · CC BY-SA 4.0

콜롬보 관광

올드 등대, 옛 국회의사당, 갈레 페이스 호텔, 갈레 페이스 그린, 강가라마 사원, 국립 박물관과 함께 독립광장과 쇼핑 지역을 둘러봅니다.



스틸트 피셔맨(죽마 어부)

코갈라 해안을 따라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기법인 죽마 낚시를 하는 어부들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16 콜롬보 →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

아침 식사 후 체크아웃하고 공항으로 이동하여 출국합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inclusive of all chauffeur accommodation.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throughout the tour.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International / Domestic Airfare.
- Any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Entrance fees.